

부상 '후후~' KIA 쌍두마차 다시 전진



양현종

지난주 좌측 내전근 이상
큰 이상 없이 근육통
5일 LG전 선발 등판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과 안치홍이 '책임감'으로 땀을 흘렸다.

KIA는 최근 부상 때문에 몇 차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9일 KT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좌측 내전근 이상으로 일찍 등판을 마무리했고, 앞선 21일 LG와 원정경기에서는 안치홍이 슬라이딩 도중 손가락을 다치면서 경기 도중 교체됐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양현종은 지난 1일 MRI 촬영 결과 근육이 뭉쳤지만 등판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안치홍은 22일 우측 중지와 약지 인대 염좌로 엔트리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골절상이 아니라 한숨 돌렸다.

개인 7연승을 달리며 마운드를 이끄는 '에이스'와 6월 한 달 0.368의 타율을 기록한 주축 타자의 부상은 고민 많은 KIA에 악재가 됐다.

하지만 두 선수는 '책임감'으로 자리



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먼저 양현종은 등판을 거르지 않고 정상 로테이션대로 출격할 예정이다.

KIA 박흥식 감독대행은 2일 취재진과 만나 "(양현종의 로테이션을) 그대로 가기로 했다. 본인 의지가 강하고 경기 결과도 괜찮다고 한다"며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괜찮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현종은 5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다.

로테이션과 이닝은 양현종이 이야기하는 책임감이자 자부심이다. 검진 결과는 물론 자신이 느끼는 몸상태도 좋기 때문에 양현종은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양현종은 투수들의 수비 훈련인 PFP(Pitcher Fielding Practice)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루틴대로 챔피언스필드를 뛰며 다음 등판을 정상적으로 준비했다.

재활군인 안치홍도 2일 합평 재활센터 스피드에서 방망이를 들었다.

부상 당시보다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손가락은 부어있는 상태다.

안치홍

3루 베이스서 손가락 부상
다행히 골절은 피해
이르면 오늘 1군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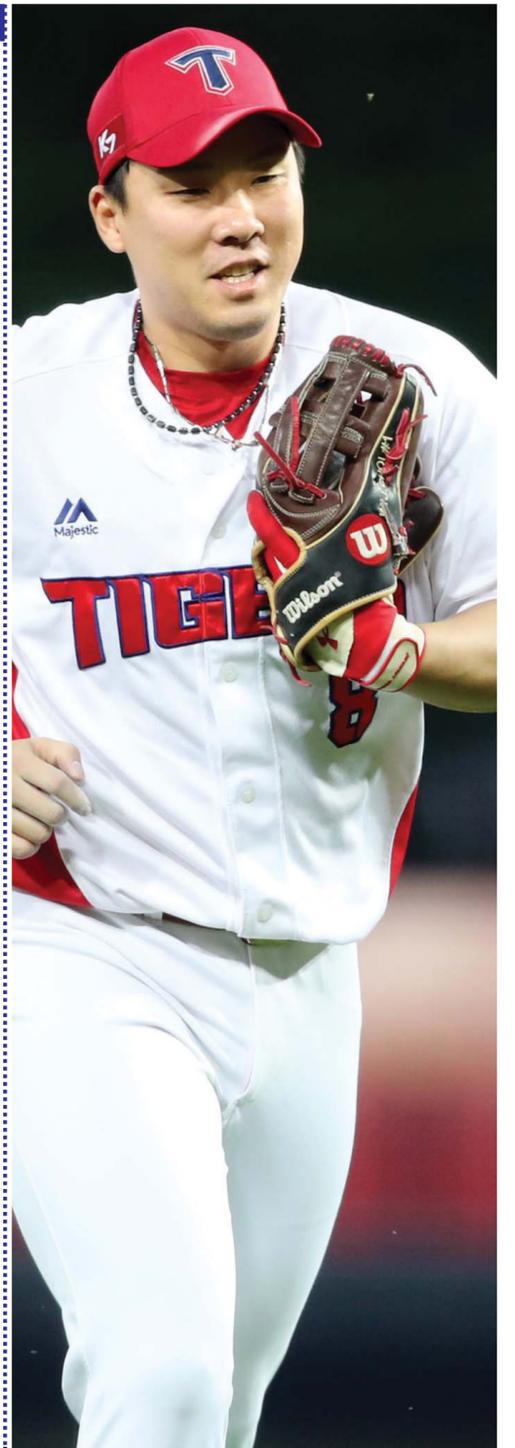
안치홍은 "한번 다치면 손가락이 부은 상태 그대로 간다고 한다.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완벽하게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며 "송구가 조금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에서 안치홍은 '몸 관리'에 우선 신경 쓰면서 복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안치홍은 "앞서 파울 타구에 맞은 다리 부위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슬라이딩을 하지 못하고 비켜서 들어가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내가 관리 더 잘하고 조심해야 했다"며 "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주장 역할까지 주셨는데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 잘 준비해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감독대행은 퓨처스 선수단이 원정 6연전을 떠난 만큼 3-4일 정도에 안치홍을 1군 선수단에 합류시켜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기회를 기다렸다"는 씩씩한 대졸 루키 오선우. 그는 지난 6월 3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데뷔 안타를 기록했다.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첫 번째 타석에서 1루수 땅볼로 물러났던 그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를 넘는 안타를 때린 뒤 3루까지 향했다. 프로 데뷔 안타를 3루타로 장식한 오선우는 2사 만루에서 맞은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2타점 적시타도 기록했다. 오선우는 "나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아직 신인인데 주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으니가 욕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아들보다 기사가 더 많이 나오세요

데뷔 안타 오선우 "딱 기다리고 있었죠"

= 2일 엔트리에 등록된 외야수 유민상. 이날 유민상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안 부를 묻는 말을 많이 들었다. 유민상의 아버지는 유승안 경찰야구단 감독이다. 경찰야구단은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신규선수 선발이 중단되면서 오는 8월 20명의 소속 선수들이 제대하면 해체될 예정이다. 경찰야구단은 지난 6월 30일에는 벽제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마지막 홈경기도 치렀다. 경찰야구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유 감독의 인터뷰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유민상은 "요즘 아들보다 아버지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며 웃은 뒤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고 있다. 잘 계신다"고 언급했다.

▲저 내일 결근할래요 = 문경찬은 마운드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씩씩한 마무리다. 하지만 문경찬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카메라 울렁증이다. 문경찬은 2019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KIA를 대표하게 됐다.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이와 관련한 홍보 영상 촬영을 하게 된 문경찬. 그는 2일 훈련이 끝난 뒤 홍보팀 직원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던 문경찬은 "저 내일 결근할래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문경찬은 "원래 장난도 잘치고 잘 노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달라진다"며 "나를 막는 족쇄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챔피언스필드서 NC전 시구 한 광주 FC 임원상

"첫 투구, 이렇게 잘 던질 줄 몰랐다 강인이가 단독방에 올려서 소문나"

"몰래 하려고 했는데 (이)강인이가 소문 다녔어요."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엄살라' 임원상(광주FC)이 2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았다. 임원상은 이날 KIA와 NC의 홈경기에서 열린 챔피언스필드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임원상은 시구 전 "다른 스포츠에는 재능이 없어 축구만 하다 보니까 처음 야구장을 오게 됐다"며 "처음 시구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다. 큰 무대에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해볼 생각이 다"고 밝혔다.

친구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는 무대이기도 했다.

"손으로 하는 것에 재능이 없다"며 웃은 임원상은 "일부러 시구한다고 (U20 대표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사가 나갔고, 강인이가 단독방에 올려놔서 애들이 다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원상은 앞서 한화의 시구자로 나선 김세운과 이지솔(이상 대전 시티즌)의 조언도 구했다. 마침 앞선 원정경기 상대가 대전이었다.

임원상은 "경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애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한다"며 "나는 평범하게 시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능이 없다면 말과 달리 임원상은 시구

연습을 할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과시했다.

시구를 지도한 전상현이 "마운드에서 던져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임원상은 강하고 정확하게 공을 던졌다. 그리고 임원상은 마운드에 올라서도 포수 미트로 바로 공을 뿌리면서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임원상은 "TV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마운드에 올라보니 상당히 멀었다"면서도 "손으로 하는 스포츠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잘 던져서 만족스럽다"고 시구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필드에서의 활약도 다짐했다. 임원상은 "한국에 와서 많은 친구들과 기부 행사도 해봤는데 많은 분이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다"며 "목표는 우승이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모든 선수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 자체에서 선수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이겨내서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을 통해서 내 장정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여 드린 것 같지만, 공격수로서 포인트가 없던 건 많이 힘들었고 미안했다. 내 단점을 알았으니까 빨리 보완하겠다"며 "광주FC에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감독님 따르고 형들과 최대한 많이 발 맞춰보면서 출전 기회를 얻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원상(광주FC)이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KIA와 NC와의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하고 있다.

"졌지만 내 경기 100점"

권순우, Wimbledon 테니스 男 단식 1회전 탈락

Wimbledon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파운드·약 557억3000만원) 1회전에서 세계 랭킹 9위 카렌 하차노프(러시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 권순우(125위·CJ 후원)가 자신의 올해 월드컵 경기 내용에 대해 "100점 만점을 주고 싶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권순우는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Wimbledon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하차노프에게 1-3(6-7(6-8) 4-6 6-4 5-7)으로 졌다.

강한 상대를 1회전부터 만나 고전이 우려된 권순우는 그러나 매 세트 접전을 벌이며 3시간 7분간 코트 위에서 분투했다.

특히 1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 6-5로 앞서 세트 포인트까지 잡았으나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2, 4세트에서도 막판까지 하차노프를 괴롭히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가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기 직전에 나온 아쉬운 실책이나 상대의 운이 따르는 샷 등에 분위기를 잡았다.

경기를 마친 뒤 권순우는 대한테니스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하고 싶은 플레이를 거의 해서 후회는 없다"며 "경기 시작 전에 공격적으로 먼저 경기를 풀어나가고 싸움을 먼저 걸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순우는 서브 최고 시속 212km를 기록, 209km의 하차노프보다 오히려 빨랐다.

키 198cm의 장신 하차노프는 180cm인 권순우보다 18cm가 더 큰 선수다. 서브 에이스에서는 18-6으로 하차노프가 3배 더 많지만 일단 속도에서 권순우가 밀리지 않은 셈이다.

1세트 세트 포인트를 놓친 상황에 대해 권순우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1세트 그 대목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며 "3세트를 따내고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 포인트 집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브로 게임을 풀어야 할 때 못 풀 장면이 있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서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